

03 고등학교 1학년

고1 성적이 대입에 어떻게 쓰이나

학년 가중치의 실제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먼저 사실부터	2
02 그런데	3
03 학종은 또 다릅니다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학기별로 대입에 들어가는 자리** — 고3 2학기는 수시에 대개 안 들어갑니다
- ◆ **반영 교과** — 학교에서 받은 평균과 대학이 계산한 값이 다릅니다
- ◆ 학종은 **흐름을 봅니다** — 같은 학과에서 학종 합격선이 더 낮은 경우 87%
- ◆ **올라가는 흐름**이 고1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양

01 · 먼저 사실부터

여섯 학기 가운데 둘입니다

「고1 성적이 대입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물음입니다. 대입에 쓰이는 내신은 대개 고1 1학기부터 고3 1학기까지 다섯 학기이고, 고1은 그중 둘입니다.

학기	대입에	언제 정해지나
고1 1학기	들어갑니다	1학년 7월
고1 2학기	들어갑니다	1학년 12월
고2 1·2학기	들어갑니다	2학년
고3 1학기	들어갑니다	수시의 마지막
고3 2학기	수시에는 대개 안 들어갑니다	—

그래서 「고1이 5분의 2」라고 흔히 말합니다. 적지 않은 무게입니다.

다만 대학마다 반영 학기와 반영 교과가 다릅니다. 학년마다 가중치를 다르게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건 요강에 적혀 있고, 여기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출처: 수시 모집요강의 학생부 반영 방법(2026년 8월 기준). 반영 학기·교과·가중치는 대학마다 다르다 — 반드시 요강을 확인하십시오.

02 · 그런데

전 과목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시는 자리입니다. 대학은 「전 과목 평균」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이 하는 방식	어떻게
반영 교과를 정합니다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만 등
계열에 따라 다릅니다	인문은 국·영·사, 자연은 국·수·영·과 등
일부만 셉니다	상위 몇 과목만 반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중치를 둡니다	특정 교과에 더 큰 무게

그래서 학교에서 받은 「전 과목 평균」과 대학이 계산한 값이 다릅니다. 같은 학생부를 놓고도 대학마다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가는 과목에서 낮은 성적이 있어도 그 대학에서는 안 세어집니다.

그러니 고1에 하실 일

지금 반영 교과를 알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1에 지망 대학이 정해진 경우가 드물고, 요강도 해마다 바뀝니다.

대신 「전 과목 평균 하나로 판단하지 않는 것」 만 아셔도 됩니다. 평균이 낮아도 주요 교과가 괜찮으면 자리가 있습니다.

출처: 수시 모집요강의 학생부 반영 방법. 반영 교과와 계산 방식은 대학·전형마다 다릅니다.

03 · 학종은 또 다릅니다

등급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등급을 셈하는」 전형(학생부교과) 이야기였습니다. 학생부종합은 셈하지 않습니다.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내신	계산합니다	읽습니다
보는 것	등급	학생부 전체
고1이 낮으면	평균에 남습니다	흐름을 봅니다

맨 아랫줄이 고1 부모님께 중요한 자리입니다. 학종은 고1이 낮았다가 올라간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뭉개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2026학년도 입결을 센 바로는 같은 학과에서 학종의 합격선이 교과보다 낮은 경우가 87%였고, 0.5등급 넘게 갈리는 자리가 51%였습니다.

그러니 고1이 아쉬웠다면 학종 쪽에 자리가 있습니다. 다만 학생부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 그게 조건입니다.

출처: 2026학년도 전형결과 1,845개 학과 짝을 건준 집계. 컷을 공개한 곳만 센 것이며 개별 학과 값은 신지 않습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고1에 하실 판단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보십시오
고1 1학기가 아쉽다	네 학기가 남았습니다 — 아직 이릅니다
한 과목만 크게 낮다	반영 교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 과목이 고르게 낮다	방식을 봐야 합니다
1학기보다 2학기가 올랐다	학종에서 읽히는 흐름입니다

맨 아랫줄이 고1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것보다 올라가는 흐름이 읽히기 쉽습니다.

그러니 고1 1학기가 아쉬웠다면 2학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성적이라도 「내려간 뒤」와 「올라간 뒤」가 다르게 읽힙니다.

고1 성적에 대해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고1이 다섯 학기 중 둘 인 것을 아는가
- ☐ 고3 2학기는 수시에 대개 안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가
- ☐ 전 과목 평균이 그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가
- ☐ 학종은 계산이 아니라 읽는 것임을 아는가
- ☐ 1학과 2학기를 견줘 봤는가
- ☐ 낮은 과목이 고르게인지 하나인지 봤는가
- ☐ 고1 성적으로 대학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 ☐ 학생부가 채워지고 있는가

여덟째를 함께 보십시오. 내신이 아쉬울수록 학생부가 중요해집니다. 둘 다 비면 고3에 쓸 카드가 없습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고1 성적표를 들고 「이제 어느 대학까지 되나요」를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 답을 못 드립니다. 남은 학기가 네 개이고, 반영 방법이 대학마다 다르고, 학종은 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1에 답할 수 있는 물음은 「무엇을 고칠 것인가」 뿐이고, 그건 성적표가 아니라 아이에게 물어야 합니다.

05 · 자주 묻는 것

고1 성적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고1 성적이 나쁘면 수시는 어렵나요?

학생부교과는 어려워집니다. 학종은 다릅니다.

교과는 등급을 계산하니 낮은 학기가 평균에 남습니다. 네 학기를 아주 잘해야 만회됩니다.

학종은 학생부를 읽습니다. 고1이 낮았다가 올라간 흐름은 오히려 읽히기 좋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수능최저가 없는 자리도 있고 논술도 있습니다. 수시가 교과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학종을 쓰려면 학생부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고1에 성적이 아쉬웠다면 학생부 쪽을 더 챙기시는 편이 맞습니다. 그게 남은 카드입니다.

Q. 1학기 와 2학기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요?

대학이 계산할 때는 대개 같습니다. 학기마다 가중치를 두는 대학이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뜻에서 2학기가 더 중요합니다. 1학기 뒤에 무엇을 고쳤는지가 2학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학기는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시험이고, 2학기는 「고칠 수 있는 아이인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학종에서 읽히는 것도 그 흐름입니다. 같은 3등급이라도 4등급에서 올라온 3등급과 2등급에서 내려온 3등급이 다르게 읽힙니다.

그러니 1학기 결과보다 그 뒤 여름에 무엇을 했는지가 고1에서 가장 큰 갈림길이라고 봅니다.

한 줄로 남기면

고1은 다섯 학기 중 둘이고, 전 과목 평균이 그대로 쓰이지 않으며, 학종은 계산하지 않고 읽습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요강과 전형결과 집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반영 학기·교과·가중치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개별 학과 합격선은 실지 않습니다.